불자 세상보기

# 자비로운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황수경
동국대 강사

얼마 전 20대 청년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성우 지망생이었던 안치범(28)씨는 당시 화재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그렇지만 늦은 시간에 잠들어있는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 다시 건물로 들어갔다고 한다. 모든 층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불이 났어요! 나오세요!"하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다 정작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사망하게 된 것이다. 안 씨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다. 이 소식에 정재계 각처와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고, 정부는 안 씨를 의사자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층간 소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웃과 각종 범죄 소식들에 지쳐있는데, 젊은 청년이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든 그 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하다. 그는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단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살리려고 한 것이다. 안 씨가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희망을 다시 보게 된다. 3포 시대의 이기적인 신세대라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대학생들을 가르치며 수업시간에 물어보곤 한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언제나 많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거나 때로는 손해를 불사하고 남을 위해 보시하거나 한 일을 말해왔다. 물론 그런 일들은 인터넷이나 매스컴에 나오지 않는다. 취업을 위한 경력이 되지도 않고 돈이 되는 일은 더더욱 아니다. 사실 안 씨도 본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알려지거나 이슈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비심과 봉사하는 마음만은 보이지 않은 공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반면에 화재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안 씨와 같은 20대 청년이 불을 낸 것이라고 한다. 헤어지자는 애인의 말에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한다.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까닭이다.

'한 찰나에 부처님의 마음이요, 한 찰나를 몰라서 끊임없는 억겁에 이끌린다' 라는 가르침이 생각난다. 그동안 교도소 봉사를 다니며 가슴깊이 참회하는 수많은 재소자들을 보아왔다. 그 가해청년도 안 씨의 희생을 보고 진심으로 자기잘못을 참회하는 계기가 되기만을 간절히 기원한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공생하는 연기적 존재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닌 공심공체(共心共體)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무아(無我)를 말씀하시며, 혼자서만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셨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분리된 '나' 라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허상이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 라고 하셨다. 사실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지만 안씨처럼 소리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대승보살들이 많을 것이다.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에서는 보살이 보리심에서 물러나는 원인 중 하나가 중생들에게 자비심이 작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냥 안씨의 희생을 잠깐 고마워하고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희생을 무릅쓰지는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자신의 중생심을 보살의 마음으로 다스려갈 수는 있다. 매일 하루를 사는 동안 갖가지 경계가 일어난다. 그 순간 마음 속에 삼독심의 불을 일으킬 것인가, 남을 생각하는 자비의 불을 피울 것인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이 달라진다. 오늘 나의 한 생각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불같은 마음에너지가 재난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자비의 힘이 될 수도 있다. 안 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일체 중생이 탐진치의 불을 끄고 내면의 불성을 환하게 밝혔으면 한다.

발언대

## 김영란법 시행, 불교언론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이 9월 28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불교계 안팎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불교기자협회(협회장 김현태)가 26일 불교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무법인 나라의 전승진 변호사가 질의응답을 통해 불교계 언론 상황의 법적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싣고자 한다. 〈편집자주〉

# "취재시 금품받으면 징역 2년"



전승진
법무법인 나라 변호사

**1. 김영란법 상 언론인, 불교언론인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합니다.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스님이 대표, 발행인, 편집인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 언론인에 포함됩니다.

**2. 만약 부정청탁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크게 과태료 부과, 징계, 형사처벌로 나뉩니다. 가장 약한 처벌인 과태료부과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1000만원 이하)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2000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해 공직자가 부정청탁(3000만원 이하)을 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본인을 위해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징계와 형사처벌이 되게 됩니다. 형사처벌 기준은 부정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수행한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 처리자 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의 상급자와 감독권이 있는 대표자 모두가 처벌 대상에 속합니다.

**3. 금품의 수수범위는 어떻께 됩니까.**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된다면 그 본인과 배우자까지 금품수수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시 뇌물죄가 성립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4. 언론사가 불교계 사찰과 단체 등과 공동기획, 공동주최 등으로 취재를 하는 경우, 현장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에게 사찰과 단체가 교통비 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저촉이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금품수수는 금지되나, 광고나 구독 형태는 통상적인 거래행위로 판단돼 예외사항입니다. 또한 공동기획 시 계약에 의한 업무집행상 경비지급이 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다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경비지급으로 보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5. 각종 지방과 해외 취재의 경우 주최 측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저촉되는지요.**

행사에서 특정언론의 임직원에게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재대상입니다.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금품은 예외범위입니다.

**6. 언론사를 대상으로 식사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일률적 제공에 의한 것이라면 일명 3 · 5 · 10으로 일컫어 지는 음식 · 선물 ·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입기자단이나 기자협회 등 해당분야에서 인정받는 공신력있는 단체를 통해 일률적 혜택이 제공된다면 저촉되지 않습니다.

**7. 언론사에서 각종 행사 진행 시 다양한 단체, 기관의 협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앞서 밝혔듯 김영란법은 자연인, 개인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현재 법인과 단체는 제재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단체와 개인의 청탁과 금품수수 행위 등은 단체의 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아직까지 도입 초기 단계로 국민권익위에서 법원의 판례보다 더욱 보수적이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社說

# WFB 서울 총회가 남긴 과제는?

전세계 불교도들의 대축제인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8차 서울총회' 가 태국과 스리랑카 등 전세계 20여개국 불교지도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막을 내렸다.

현재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 더 멀리 볼 필요도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 속한 한반도만 해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분위기가 잔뜩 얼어 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그 벽을 뛰어넘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해법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이번 총회는 그 여느때보다도 의미가 컸다. 설립당시 27개 국가의 27개 지역 센터로 시작한 WFB는 66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 55개국의 189개 지역 센터로 성장 발전해 세계 불교계의 여론 형성에 무시못할 큰 규모의 단체다. 명성과 역사를 말해 주듯 3일간의 회의와 포럼 분위기도 사뭇 진지했다. 언어간의 장벽은 있었지만 회원들간의 소통엔 문제가 없었다. 어느 총회나 하이라이트는 대회 기간중 회의와 포럼 내용을 집약한 아젠다가 담긴 공동 선언문 채택이다. 총 6개 의제가 담긴 이번 선언문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골자는 이렇다. 우리는 평화 · 조화 · 관용의 정신을 유지함으로써 세계 시민의 책임을 알고, 그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화와 안정은 지각 있는 존재의 행복을 위한 기초이고 개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 개인적 성장, 공동체 관계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WFB 모토는 하나된 지혜와 동정심이며,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 이 지혜를 자국의 불자들에게 전법하는 것이다. 2년 뒤 2018년 11월 일본 나리타서 열릴 '제 29차 총회' 에 WFB 회원들은 또 어떤 해법을 들고 모일까?

# 옥천사의 문화재 환수 비결

경남 고성 옥천사는 '문화재 환수' 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옥천사가 단독 혹은 종단과 협력해 환수한 문화재는 올해만 3점이다. 지난 8월에는 1988년 도난됐던 나한상 2점이 옥천사로 돌아왔고, 9월 23일에는 보물 제1693호로 지정된 '옥천사 시왕도' 의 한 폭인 '제2초강대왕도' 를 프랑스에서 환수했다.

이번에 환수된 '제2초강대왕도' 는 조계종이 도난 여부에 대한 근거 서류를 중앙기록관에서 확인하고, 국내외 법률자문을 받는 등 역할을 했지만, 결정적 협의는 모두 옥천사에서 이끌어냈다.

옥천사 성보박물관장 원명 스님과 강소연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9월 12일 추석연휴도 뒤로하고 프랑스로 가서 기메박물관 학예사와 '제2초강대왕도' 소장자를 만났다. 이들은 협의 끝에 15일 소장사에게 유상 기증을 이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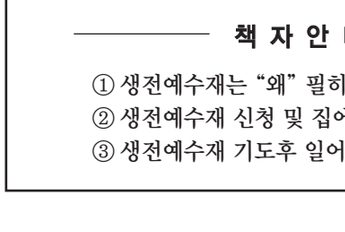
옥천사의 이같은 성과는 모두 '도난성보문화재 환수' 라는 원력에서 나온다. '제2초강대왕도' 환수의 경우 기증사례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성보 환수를 하겠다는 옥천사 주지 진성 스님의 원력에 따라 실무자가 프랑스 현지로 급파돼 성과를 낸 것이다.

나한상 환수도 마찬가지다. 옥천사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성보문화재 연구와 도난문화재 환수 등 상호 지원을 이어가기로 약속했고, 기초 연구를 진행해 도난 나한상의 진본 사진을 발굴했다. 이후 도난 나한상 2점이 환수되기까지는 2달여 밖에 안 걸렸다. 결국 옥천사의 문화재 환수 비결은 원력과 공심 그리고 실천에 있다. 이는 종단적으로 권장할 문화재 환수의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완전한 지혜의 세계,
화제의 신간
密 밀이 세상에 나왔다 !!
최상 깨달음 지혜 과정이
이보다 더 상세할 수는 없다.
5, 6, 7, 8, 9식(識) 전변 깨달음세계와
완전한 깨달음 6종각(六種覺)인
5각, 6각, 7각, 8각, 9각, 10각(十覺) 성불
과정의 경계와 지혜의 길을 상세히 완전히 밝혔다.
밀법 태장계와 금강계, 옴마니반메훔, 광명진언 등의
실상세계를 자세히 밝혔다.

전국 서점 판매중!
박명숙(德慧林)저
밀1권 500쪽 / 밀2권 584쪽 / 정가 각: 35,000원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